

‘푹푹’ 찌는 여름, 소음 때문에 문도 못 열어

자동차 엔진·경적 등 소음 극심 심야시간 더 심해 도로 위 소음 규제대상 안돼 시민들만 불편 감수

6월 들어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도심 소음 때문에 시민들 상당수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차량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의 경적음, 불법 개조된 차량들의 배기음 등이 뒤섞여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등 6월 들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고 통풍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려 해보지만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

도심을 가득 메운 자동차와 이륜차 등이 뒤섞여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심교통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어 소음저감 대책도 전무하다.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요란한 경적을 울려대는 이륜차와 배기음을 개조해 굉음을 내는 튜닝카들이 도심을 활보하는 바람에 무더운 날씨에도 문

을 열어두기 어렵다.

이처럼 극심한 도심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소음진동규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65dB,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dB, 밤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60dB 이상의 소리는 생활소음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소음 기준은 중간소음 기준과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서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 위에서 나는 소음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고속도로나 순환도로의 근처엔

방음벽이라도 그나마 설치돼 있지만 일반적인 도로나 이면도로에서의 소음은 더욱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에어컨 전기를 아끼려 창문을 열고 자는 시민들이 밤마다 도로 위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완동에 사는 김 모씨(29)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넓은 도로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면서 “새벽시간대가 되면 차량 배기음을 조작한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다니는데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동림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31)는 “아파트 주변에 순환도로가 있어 방음벽이 세워졌지만 밤마다 차량들과 오토바이 경적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판이다”

며 “배달 오토바이는 이상한 경적음을 울려대며 지나다니고 커다란 차량들이 밤새 뱅뱅거리며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생활소음 기준이 중간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측정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서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음측정 방법은 소음 피해 장소에서 5분간 측정하며, 차량들이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단속은 쉽지 않다”며 “일반적인 방법은 주로 중간소음 등에 이용되고 있어 도로 위의 소음 등의 세분화된 생활소음 기준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간뎃골 영화제 주민배우 모집
중흥2동 주민센터 30일 까지

광주 북구는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3회 간뎃골 영화제 시나리오와 주민 배우를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간뎃골은 광주 북구 한가운데 위치한 중흥동 일대를 의미하는 옛 지명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간뎃골 영화제는 마을의 모습과 동네 주민의 생활을 담은 이야기로, 주민이 직접 배우로 나서서 마을을 영화제이다.

시나리오는 사람사는 이야기, 동네 명물 이야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하면 된다.

당선작은 20-30분 분량의 영화 시나리오로 제작한다. 주민 배우는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중흥2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또는 전화접수(410-8614) 하면 된다.

이번 영화는 ‘불림소리’ ‘공인’ 등 다수의 독립 장단편영화를 제작한 유순안 광주독립영화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오는 6월부터 마을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의 생생한 모습과 사연들을 중흥2동 주택가 등 동네의 특성이 잘 묻어나 곳에서 촬영할 계획이다.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6년 광주 지역 최초로 주민 출연 극영화를 제작·상영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담은 두번째 마을영화 ‘촌섬아’는 제6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종찬 기자

미 국무부 장학생 한국어 배운다 전남대 언어교육원, 5·18민주화운동 교육도

28명의 미국 국무부 장학생이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전남대 언어교육원은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미 국무부 위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인 CLS(Critical Language Scholarship)를 위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CLS 한국어 장학생들은 지난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8월 3일까지 8주간(160시간) 한국어교육을 받게 된다.

전남대 언어교육원은 언어교육을 비롯해 문화수업, 야외체험활동을 통해 한국문화 교육도 마련했다. 특히, 전남대는 미국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 및 영화상영, 국립묘지참배 등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 학생들은 연수기간 동안 광주

시내 가정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한국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또 전남대 학생들과 일대일 언어파트너를 연결해 생생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언어파트너 학생들은 8주 동안 미국 학생들의 과제수행, 한국어학습, 문화체험활동 등을 돕는다.

엄철주 언어교육원장은 “4년 연속 미 국무부의 권위있는 CLS 프로그램의 위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남대의 위상과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육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14일 오전 전남대에서 ‘2018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홍보활동에 나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단체회원들이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호남대 개교 40주년 기념식

편종이 중 하북미술대학 이사장 명예 박사학위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15일 본교 문화체육관에서 개교 40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호남을 이끈 40년,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기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과 서강석 총장, 박상철 부총장, 손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호남대는 우수 예술인 양성을 위해 앞

장선 편종이 중국 하북미술대학 이사장 겸 총장에 명예경제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편종이 총장은 중국 1급 미술가로 몽룡화학파를 창시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호남대와 지속적인 미술전시회 등을 통해 한중 우호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토목환경공학과 김민환 교수와 취창업지원단 고영삼 과장, 입학관리과 문은선 과장, 학술정보과 김종열씨가 30년 장기

근속상을, 간호학과 유혜숙, 정보통신공학과 강은주 교수와 총무과 이채수, 학술정보과 양철규씨가 우수 교직원 표창을 받는다.

호남대는 그동안 교육부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교육개혁 우수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국 특화대학, 호남을 대표하는 특성화, 프라임, 링크플러스 국책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5만여인재를 배출했다.

올해는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의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돼 국가와 지역의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황애란 기자

서구,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광주 서구가 오는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구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폭염 대비 후원금품

지원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폭염 시작 전 독거노인 돌봄(응급)사업기관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처치요령, 폭염대응 행동요령 등 독거노인 자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